

Statement (ENG)

My work references symbols rooted in art history and our language, while simultaneously liberating them from their entrenched systems of meaning. This liberation occurs through a focus on the object's form, revealing the very qualities of the named object. For instance, the bird (-like) motifs that frequently appear in this exhibition are a prime example. Birds have traditionally carried a range of symbolic meanings, but I was first drawn to the shape of their long beaks. In the paintings, this is the only significant feature of a bird that is functioning. Whether it's a human, bird, or flower, every being expresses movement in a certain direction. The world is composed of forces and directions—countless arrows drifting through space, all pointed toward the same direction.

An arrow, by its nature, can never be the object itself; it exists only as a symbol, like a “finger pointing to the moon.” In that sense, my work mirrors the act of writing poetry. A poet may feature a flower, a landscape, or a face as the subject, closely examining their appearance and elevating them as the most remarkable things in the world, but those words are also just arrows, pointing to something beyond. So what is the “moon” they point to? It is perhaps the space that all objects, stripped of their essence, yearn for—the space of "Daebie" (對非; no object, or vacancy).

A poet once said that poetry is written by those with an abundance of love in their hearts, people who love every object and enter into it fully.

But another man remarked, “To one thing all to see, a person must have two eyes, one of love and one of hate.” (1876 notebook, quoted in Small, Nietzsche and Rée, p.58)

We need the cynicism to look at a flower and say “No, it is not a flower.” For every subject, misunderstanding is the inevitable imprisonment. My paintings are, in that sense, attempts at escape—a poem of liberation, striving toward true existence and freedom.

Statement (작가노트)

나의 작업은 미술사를 비롯한 언어세계에 존재해온 상징들을 지시(reference)하는 동시에, 그것들을 고착된 의미체계로부터 해방시킨다. 해방의 방식은 대상의 형태에 집중하여, 이를 지어진 그 무엇 이면의 특질(quality)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이번 전시에 많이 등장하는 새(처럼 보이는) 형상이 그러하다. 새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상징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먼저 그것들이 가진 긴 부리의 형태에 이끌렸다. 그것만이 실제로 회화에서 작동하는 새의 유의미한 특질이다. 인간이던, 새던, 꽃이던, 모든 존재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그리고 있지 않은가? 세계는 힘과 방향성으로 이루어져있다. 우주에 표류하는 무한한, 그러나 일제히 한 방향으로 향하는 화살표.

화살표란 그 의미 자체로 언제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그것은 기호로서만 존재하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작업은 시 쓰는 행위와 아주 닮았다고 생각된다. 시인은 시의 주인공으로 꽃을 등장시킬 수도 있고, 풍경을 등장시킬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얼굴을 등장시킬 수도 있지만, 그리하여 그것들의 생김새를 찬찬히 뜯어보고, 그것들에 대한 말을 하고,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무엇으로 여겨지게 할 수 있지만, 그 말들 또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화살표와 다름 없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가리키는 “달”은 무엇이고, 어디인가? 그것은 아마도 존재상태를 박탈 당한 모든 사물들이 영원하는 곳, 바로 “대비”(對非; 대상 없음)의 공간일 것이다.

시는, 가슴 속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어떤 시인은 말했다. 모든 대상을 사랑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의 전체 모습을 보려면 두 개의 눈이 필요하다. 하나는 사랑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미움의 눈이다.” (1876 notebook, quoted in Small, Nietzsche and Rée, p.58)

우리에겐 꽃을 보면서 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니컬함이 필요하다. 모든 주체에게 오해란 필연적인 감옥이기 때문이다. 나의 회화는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실존과 자유를 향한 탈출의 시도이고, 해방의 시이다.

